

# '경영난' 빅5병원, 일방적 가격인하 요구에 결제 미뤄 의료기기 업체들 '파산 위기' 직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진료 축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매출 감소에 이어 가격 인하, 결제 지연 등 삼중고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위 '빅5'로 불리는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대리점들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의료기기 대리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가격을 충분히 낮추지 않을 경우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붙이겠다는 통보도 이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의료기기 업체들에 2개월만 납품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2개월 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납품 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들과의 계약은 대체로 3~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병원측에서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2개월 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가격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병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기에 쓰이는 소모품들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 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저가 입찰경쟁' 통보 하거나 2개월 간 '납품가격 인하' 요구 결제시기 2개월~6개월 변경도

중소 대리점, 매출 하락 상황 속 가격인하·결제 지연엔 '파산 위기'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가격의 임의 변동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소모품들의 경우 5~10% 정도 인하가 가능한 여유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들에 요구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 대리점들의 경우 빅5의 병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진료와 수술 축소를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 대금 지급 지연까지 이어지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한 부담은 대리점을 넘어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가격 인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리점들에서 50% 가량을 함께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병원들에 공문을 요구해봐야 받을 수도 없고, 글로벌 본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빅5'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들은 매일 수익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도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휴가 등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수술, 마취, 진료 축소가 이어지면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미 매출 축소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적 감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가격 인하가 5%만 된다해도 중소 업체들은 버틸 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유소년인구 비중 '세계 최소' (0~14세) 내후년께 10명 중 1명 미만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은 유소년인구 비중이 지난 2022년 이후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행안부, 작년말 유소년인구 10.9% 늦어도 3년 후 10% 미만으로 감소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EU 평균 15.0%, 세계 평균 25.3%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 496만 명 줄어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고 해도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출산 장려 TV광고 갈무리.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 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함평 나비 대축제

2024. 4. 26. (금) - 5. 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오직 함평나비대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어요!

- 체험 프로그램**
  - 가족과 함께하는 나비 날리기
  - 나비 손수건 만들기
  - 바닷방울 놀이
  - 전통놀이 체험
  - 인디언텐트(쉼터)
  - 젓소목장 나들이 체험
  - 나비브로치 만들기
  - 나비의상 체험
- 문화/공연 행사**
  - 개막 공연
  - 나비 뮤지컬페스타
  - 마술, 버블쇼
  - 지역예술단체 공연
  - 나비거리퍼레이드
  - 버스킹 공연
  - 엄마까투리(심어롱쇼)
  -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및 경연대회
- 전시관**
  - 나비곤충생태 표본전시관
  - 수생·다육식물관
  - 자연생태관
  - 친환경농업관
  - 곤충생태학교
  - 함평추억공작소(황금박쥐전시관)
  - 함평군립미술관
  - VR체험관

함평 자동차극장

함평 천지물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관광협회 (사)한국응용곤충학회